

정월 대보름날 한해 소망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글 조승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인류학박사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날 밤 달이 떠오를 때 생솔가지를 쌓아올린 무더기에 불을 질러 태우며 한해 소망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달집태우기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 등에는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풍요를 기원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아 오랜 농경문화의 터전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 온 풍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생산력(生産曆)과 제의력(祭儀曆)의 기준이 되는 달은 농경 및 어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달집태우기는 한강 이남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신앙의례이며 놀이로서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및 풍농(豐農)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달집이란 달[月]과 집[宅]의 합성어로 '달의 집'이란 의미이며, 명칭은 지역에 따라서 달집불·달불놀이·달꼬실르기·망우리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정월의 대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이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새해, 질병도 근심도 없는 새해를 맞는다는 사람들의 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달집태우기이다. 달집이 탈 때 고루 한꺼번에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불이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또한 달집이 모두 타서 넘어질 때 그 방향과 모습으로 그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고, 이웃 마을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 마을이 더 큰 풍년이 든다고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달집태우기는 햇불싸움과도 통하는 것이고, 줄다리기가나 차전놀이 등과 같이 싸워서 이김으로써 풍년을 보다 확실하게 다짐하려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달집태우기는 대부분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화·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면이나 군 차원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대규모 달집을 태우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날의 행사로서 달맞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때로는 쥐불놀이나 햇불싸움과도 연관성을 갖는 놀이이다. 달집 만들기의 재료는 마을 청년들이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해주고 나서 짚이나 솔잎을 모아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각자 나무나 짚을 직접 해가지고 모여드는 수도 있다. 이것을 언덕이나 산 위에 모아서 쌓기도 하고, 조그만 오두막이나 커다란 다락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대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서 불을 지른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이하고, 빨강계 불꽃이 피어오르면 분명하게 풍물을 치면서 불이 완전히 타서 꺼질 때까지 춤을 추며 주위를 돌고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달집 속에 대나무들을 넣어서 그것이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는다는 곳도 있다. 또한 그때까지 날리던 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울 것들을 달집 위에 얹어서 다 같이 태우기도 한다.

흔히 달집태우기는 음력 정월 15일 밤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정월 14일이나 또는 15일 밤에 달집을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년 망월이 드는 시를 보아서 택일(擇日)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다. 가령 충남이나 전북 산간 지역에서는 망월이 드는 날 달집을 태우는 마을을 종종 볼 수 있다. 통상 망월은 정월 14~16일 사이가 되는데, 이는 달이 가장 둥글고 그 빛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달집의 재료는 솔가지가 대부분이고, 이를 보조하는 화목으로 짚이나 나뭇잎·생대나무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솔가지 대신 생대나무와 짚으로 달집을 짓는 경우도 있으며, 동화제의 경우 싸리나무와 잡목이 주요 재료가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달집 속에 생대나무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대마디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악귀가 놀라서 달아난다는 주술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대보름날 새벽에 집집마다 생대나무를 잘라 마당에 쌓아 놓고 이른바 가렛불·다랫불을 놓아서 악귀를 물리치는 풍속과 맞닿아 있다. 달집의 형태는 지역별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긴 막대 3~4개를 움집과 유사하게 원추형으로 세우고 그 꼭지점을 묶는다. 달집 속에는 불에 잘 타는 짚, 마른 나무, 생대나무 등을 넣고, 바깥 쪽에는 솔가지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 이엉을 엮어서 씌우고 침땀굴이나 새끼줄로 감아 맨다. 그리고 달이 뜨는 맞은편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작은 문을 내는데, 이를 '달문'이라고 한다.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달집태우기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단지 달집에 불을 지르며 새해의 소망을 축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보름 동제와 결합되어 그 부속 행사로 달집을 태우는 경우이다. 셋째는 달집태우기가 곧 동제의 대상이 되어 따로 제관을 선정하고 제수를 갖추어서 풍농 및 방역(防厄)을 기원하는 경우이다. 이들 중 달집에 불만 놓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여기에 술을 붓고 절을 하는 등 간단한 의식이 부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과는 관계없이 달집이 타오를 때는 개별적인 의례가 수반되기도 한다. 예컨대, 신년 운세가 좋지 않거나 삼재(三災)가 든 사람은 저고리의 동정을 떼어서 불태우거나 또는 고쟁이·제우·사주단자·부적·머리카락을 태우며 액땀을 기원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따로 제수를 준비하여 달집에 치성을 드리고, 가족이 무탈하기를 비는 소지를 올린다. 아이들은 정초에 날리던 연을 불사르면 액운이 없다고 하여 달집에 태운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달집태우기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남 순천시 월등면 송촌리의 달집태우기[전남무형문화재 제24호]가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2006년 송촌리에서 이루어진 달집태우기의 구체적인 묘사이다.

송촌리 달집태우기의 준비과정은 음력 정월 14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마을 주민들은 달집을 만들 때 사용할 소나무의 잔가지와 짚 등을 준비하고, 대나무를 베어 쌓아 둔다. 대나무는 불을 피웠을 때 '퐁' 하고 터지는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에 악귀가 놀라서 물러난다는 생각 때문에 달집태우기에 같이 태운다. 달집은 우선 큰 나무로 달집의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고 그 안쪽에 솔가지들을 채워 넣는데, 바깥쪽은 짚을 이엉처럼 엮어 둘러 전체적으로 삼각뿔 형태의 달집을 만든다. 그리고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짚을 엮어 출입문을 만들어 둔다. 이때 마을 주민들은 달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 지을 때까지 한바탕 풍장을 올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과거에는 마을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정해서 달집을 지었지만 지금은 마을 입구의 눈에 달집을 만드는데,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산불의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달집태우기가 이루어지는 대보름날 몇몇의 마을 청년들은 달집 둘레에 금줄을 두르고, 마을 주민들은 각자 종이에 한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방액(防厄)', '점풍(占豊)', '태평세월(太平歲月)' 등의 글귀를 적어 금줄에 끼워 넣는다. 그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줄다리기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원래 이 마을의 달집태우기에 줄다리기가 동시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마을 주민은 "옛날 마을 어른들로부터 줄다리기를 했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동안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다. 올해부터 달집태우기에 줄다리기도 같이 시작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줄다리기를 달집태우기와 같이 준비했다"는 대답을 했다. 따라서 줄다리기는 달집태우기의 흥을 북돋우고, 많은 볼거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때 마을 화관은 물려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마을사람들도 함께 모여 막걸리를 한 잔씩 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마을 풍장패가 모여 매구를 치러 갈 준비를 하였다. 굿은 마을의 두 당산나무를 돌며 진행되는데 한그루는 마을 안쪽에 있고, 다른 한그루는 마을 입구의 회관 건너편에 서 있다. 당산나무는 수령이 백년 이상 된 곶목 나무이다. 상쇠의 쇠소리에 따라 매구 패와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당산나무로 향하였는데, 먼저 마을 안쪽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굿을 치고, 그 다음으로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굿을 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산나무에 도착해서 나무를 돌며 풍장을 올리다가 주(酒)와 포(脯), 밥, 대추, 곶감 등의 삼색과일로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상쇠의 고사덕담을 끝으로 간단한 제의를 마쳤다. 마을 앞쪽 당산나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으로 고사를 지낸다. 매구를 마친 풍장패들은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돌아와서 한바탕 어울린 다음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어스름하게 내려앉는 5시 경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달맞이 하러 가세!", "달맞이 하러 가세!"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밖으로 몰려 나갔다. 농기와 각종 깃발을 든 사람들이 앞서고 그 뒤로 줄다리기를 할 동아줄을 짚





어진 사람들이 따르고 다시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어깨춤을 추며 이동하였다. 달집이 만들어진 곳에 도착하면서 풍장패의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먼저 줄다리기 준비를 하였다. 줄다리기 팀은 두 팀으로 나뉘었는데, 한 팀은 홍색 지네발로 장식한 청색 깃발을 들고, 다른 한 팀은 청색 지네발로 장식한 홍색 깃발을 들고 있는데, 깃발에 글씨는 섞여져 있지 않았다. 줄다리기의 줄은 암줄과 수줄로 구분하고, 각 줄의 길이는 약 35m 정도이며, 직경은 약 15cm 정도이다. 줄다리기 진행자의 구령에 맞춰 두 줄이 합궁되고, 끈이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승패가 결정 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이긴 쪽은 풍장소리에 맞춰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었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달집태우기가 시작되는데, 먼저 달집 앞에 고사 상을 준비하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상위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좌측에 포와 그 앞으로는 배, 굴, 사과 등의 과일을 진설하였다. 간단한 제차에 의해 헌관의 헌작과 독축이 끝나면 참가자 모두 재배하고 달집태우기를 시작한다. 달집 점화는 마을 원로들이 각기 횃대를 하나씩 들고 불을 붙인 후 달집으로 옮겨 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달집에 불이 붙자 풍장 패는 풍물을 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달집 주변에서 더듬실 어깨춤을 추면서 이따금 달집과 달을 향해서 합장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을 주민들은 달집이 잘 타고 불빛이 밝으면 마을이나 모든 가정에 달이 없고 풍년이 든다고 믿으며, 또한 한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달집을 태운 연기가 하늘높이 솟아올라야 좋다고 하며, '달 꼬슬리기'라는 말도 솟아오르는 연기와 관련되는 말이다. 달집은 어느 정도 타면 쓰러지기 마련인데 쓰러지는 방향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한다. 달집이 마을을 향해서 쓰러지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여기고, 달집속의 생대나무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마을의 액이 잘 물러간다는 속신(俗信)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달집태우기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정월 대보름 행사로서 마을을 단위로 한 가장 큰 집단놀이랄 수 있다. 달집태우기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대보름의 밝은 달과 불이 지닌 정확력을 적극 이용한 액막이 의례이다. 그것은 보름달이 떠오를 때 거대한 달집을 불태우는 것으로 마을에 깃든 모든 악귀가 소멸될 것이라는 염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달집태우기는 새봄을 예축(豫祝)하는 역동적인 의례로서 달과 관련된 다양한 대보름 세시풍속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녹아든 대표적인 민속놀이면서 신앙의례적인 행위이다. ☺